

## 번역문의 결텍스트 —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박 선 희  
(고려대)

### 1. 서론

오늘날의 번역학은 하나의 원문과 다수의 번역문을 비교해서 분석하던 종래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그 연구 범위가 번역자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김영신 2012: 9) 이를 넘어 번역 수용 사회에 대한 연구로도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sup>1)</sup> 이런 새로운 연구 방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연구 도구들 중의 하나가 바로 번역문의 결텍스트(paratexte)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번역문의 결텍스트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상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말하는 결텍스트란 주네트(Genette)가 그의 저서 *Seuils*(1987)<sup>2)</sup>에서

---

1) 관련된 연구들은 본 논문의 2장 번역문의 결텍스트를 활용한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영어 번역본 제목: Genette, Gérard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정의한 주변텍스트(péritexte)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유한내 2013: 105). 결텍스트란 본문과의 자리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주변텍스트(péritexte)와 바깥텍스트(épitexte)가 합쳐진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번역문의 결텍스트 연구’들은 주변텍스트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의 결텍스트 연구가 주변텍스트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우선 연구 자료 수집의 수월성을 들 수 있다. 주변텍스트는 번역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므로 자료 수집이 수월한 반면에 바깥텍스트는 번역서의 물리적 구성과는 관련이 없는, 번역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요소들이므로 자료 수집에 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문의 바깥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사실 연구자들에게 자료 수집의 번거로움은 다음의 근본적인 방해 요인에 비하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번역 결텍스트 연구가 주네트의 *Seuils*(1987)를 결텍스트 연구의 정전으로 삼고 있지만 주네트가 이 책에서 내린 결텍스트들에 대한 세부 정의와 분류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방해 요인이 있다. 그것은 주네트의 결텍스트가 번역이 아닌 원문의 결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 대상인 번역문의 결텍스트와 그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지영래&박선희 2010: 248, 251). 이러한 문제들이 번역문의 결텍스트에 대한 연구 범위를 축소시켜 주변텍스트 연구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네트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번역문의 결텍스트들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네트가 원문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텍스트들의 분류 기준과 정의들을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그 개념을 다시 번역에 적용하여 번역문의 결텍스트들을 재정의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 2. 번역문의 결텍스트 연구 분야

우선 번역학 연구에서 결텍스트라는 연구 소재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어떤 연구 관점에서 번역문의 결텍스트들이 연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 2.1. 번역서 출판 유형

우선 결텍스트, 보다 정확히는 주변텍스트가 번역서를 구성하는 출판 형식들이기 때문에 번역서의 출판 유형 연구에 사용되었다. 공시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학 장르의 번역서 결텍스트들을 비교하거나(타이르-귀르차라르 Tahir-Gürçağlar 2002), 통시적 관점에서 한 원문의 여러 번역서 결텍스트를 서로 비교하거나(지영래&박선희 2010), 원문의 결텍스트들과 번역문들의 결텍스트들이 비교되기도 하였다(한미선 2008).

주로 1940년대 터키에서 출판된 고전문학(『걸리버 여행기』와 『지킬 박사와 하이드』)과 대중소설(『셜록 홈즈』 시리즈)의 번역문 결텍스트를 비교한 타이르-귀르차라르(2002)에 의하면, 교육부가 설립한 번역국에서 생산한 소위 ‘정전 문학’이었던 고전번역문의 결텍스트들은 이것이 창작물이 아닌 번역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국가의 지원에 의해 출판된 이 번역서들의 표지에는 원저자명이 원어로 대문자로 큼지막하게 적혀있고, 속표지에는 작품의 원제가 원어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독자가 보아도 어느 나라에서 온 외국 문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번역서들에는 번역자의 서문 외에도 당시의 터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의 서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서문들에는 외국 고전문학을 번역하는 이유가 ‘문화적 근대화’, 즉 ‘서구화’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2002: 48, 52). 번역의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교육부 번역서들에는 번역자보다는 원저자를, 번역문보다는 원문을 더 우위에 두는 경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타이르-귀르차라르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우선 민간 출판사에 발행한 동일 작품의 번역서 제목은 원제에 비해서 자유로운데 반해, 번역국의 발행한 번역서의 제목은 원제의 대어역(word-for-word translation)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에 둔다(2002: 49). 또한 원저자명은 독자의 눈에 잘 띄도록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번역자명은 속표지에 작은 글씨의 소문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한다. 이때 번역자명에는 ‘선생’이나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결텍스트 정보가

이 번역서들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기능도 겸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다(2002: 53).

이와는 반대로 동시대에 같은 도착 국가에서 출판된 대중 소설의 번역서 시리즈들에는 이것이 번역서인지 아니면 창작물인지 명확히 드러내는 결텍스트 요소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민간출판사들이 발행한 일부 대중 소설의 시리즈에는 원저자나 번역자 이름이 표기되지 있지 않은 것이다. ‘셜록 홈즈’라는 이름이 당시 대중 소설 독자들에게 알려진 이름이라 실제로 원전이 아닌 번역으로 수용되기는 하였지만, 교육부가 발행한 고전문학 번역서들과는 달리, 대중 소설 번역서들의 결텍스트 정보로는 원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발견된다는 것이다(2002: 54). 오히려 대중 소설 번역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결텍스트 요소는 인기 소설이라는 홍보 문구나 ‘탐정 소설’이나 ‘모험 소설’이라는 장르를 알려주는 요소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 타이르-귀르차라르는 그러한 이유를 대중 소설을 선택하는 독자들에게는 그 소설이 어느 장르의 소설인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중요할 뿐, 누가 썼는지, 그것이 번역인지 창작물인지 등의 정보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데서 찾는다(2002: 56-57). 그러므로 번역의 목적과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출판된 번역서들이라도 결텍스트의 유형을 달라지게 하는 원인인 것이다.

번역문의 결텍스트 정보는 타이르-귀르차라르가 수행한 공시적 관점의 연구뿐만 아니라 통시적 관점의 연구를 위해서도 유용한 연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영래&박선희(2010)는 1950년대-2000년대에 출간된 『마담 보바리』 번역서의 결텍스트들을 10년-20년 단위로 구분하여 양장판 세계문학전집의 부흥, 칼라 사진의 등장, 한자에서 한글 표기로의 전환, 청소년을 위한 논술 문학으로의 변모 등 각 시대별 결텍스트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결텍스트들의 변화는 5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결텍스트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 소설에 대한 당시 한국인 번역자들과 편집자, 넓게는 한국인들의 생각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앞의 공시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번역문의 결텍스트의 구성을 달라지게 하는 원인이 번역의 목적과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결텍스트 구성을 연구한 이런 통시적 관점의 연구는 번역 도착 국가의 번역사나 번역 수용사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원문의 결텍스트와 번역문의 결텍스트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한 연구 방법이다. 한미선(2008: 218-19)은 대표적인 정치 풍자소설인 『걸리버 여행기』와 『동물 농장』의 영어 원서와 한국어 번역서의 결텍스트들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서들은 작가 서문이나 작가의 서한, 편집자의 서한 등 영어 원서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원문 결텍스트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편으로 이 원문의 결텍스트들을 통해서 저자의 집필 의도를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어 번역에서는 역자서문이나 후기, 작가와 작품 세계, 작가 연보 등 원서에는 없는, 한국어 번역서에 추가되는 결텍스트들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결텍스트들은 번역된 풍자 소설 속에 담긴 알레고리가 현실 세계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고 결론짓는다.

## 2.2. 번역 출발/도착 국가 간의 문화적 권력 관계

원문과 번역문의 결텍스트 비교 외에도 동일 원전을 대상으로 하는 서로 다른 도착 문화권 간의 번역문 결텍스트 연구도 가능하며, 이런 연구는 출발 문화에 대한 도착 문화권들의 서로 다른 위상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마담 보바리』의 한국어 번역문과 영어 번역문의 결텍스트를 비교한 연구(지영래&박선희 2010)에서는 특히 두 언어 문화권의 번역서에 나타나는 번역자의 가시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어 번역서는 번역자가 생산을 담당하는 결텍스트들 요소들인, 역주나 작품 해설(또는 서문)을 많은 번역서들이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20세기 중반까지의 영어 번역본들에는 역주는 거의 없고 작품 해설이나 서문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축소되어 있어 번역본에서 번역자의 존재감이 덜 느껴진다고 한다. 또한 한국어 번역서에는 원저자 이름 외에 번역자의 이름만 표기되어 있으나, 영어 번역서에는 ‘서문’과 ‘삽화’, ‘역주’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도 표지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번역서 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한 번역자가 삽화가와 비슷한 대접을 받을 정도로 영미권에서는 번역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프랑스 문화에 대한 영어 문화권과 한국어 문화권의 상대적 위상의 차이로 해석한다(2010: 264-65). 즉 서로 지위가 비슷한 영어-프랑스 문화 간의 중개자인 번역

자보다, 상대적으로 상위 문화로 인식되던 프랑스 문화를 중개하는 번역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위 문화권인 한국에서 더 높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sup>3)</sup>

더 심한 경우, 출발 국가와 도착 국가의 동등하지 않는 권력 관계로 인해서 번역서의 결텍스트 정보가 원문의 출발 국가를 왜곡해서 소개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토레스(Torres 2002)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결텍스트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브라질 소설(Machado de Assis의 소설 *Quincas Borba*)이다. 번역된 브라질 문학은 수용 국가인 프랑스에서 소수 문학으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1950년대에는 프랑스 번역 문학 시스템에서 브라질 문학이 현재보다 더 주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같다. 토레스(2002: 10)에 의하면 1955년에 프랑스어로 번역된 이 소설의 표지 정보에는 저자의 이름과 번역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번역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지만, 번역서의 표지에도 서문에도 이 소설이 어느 언어와 문화에서 온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뒷 표지에 이베로아메리카(멕시코와 쿠바, 우르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시리즈의 번역서 리스트가 인쇄되어 있는데, 이런 지표가 이 소설이 브라질 작가가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포르투갈어로 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스페인어권의 언어와 문화에서 온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이 포르투갈어부터의 번역이며 브라질 문학에 속한다는 정확한 결텍스트 정보를 담은 번역서는 40년 후인 1995년에 출판되었다고 한다.<sup>4)</sup>

- 3) 195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 세계문학전집이 출판되기 시작했고 1970-80년대에 그 절정에 달했다. 이 시기에 출판된 '세계문학전집'의 소설들은 실상 '세계문학'이라기보다는 서구 중심의 백인 문학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타이르-귀르차라르(2002)가 밝힌 터키의 고전 문학의 번역 목적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선진 서구의 문학과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만큼 당시 서구 문화는 한국인들에게 상위 문화로 인식되었다.
- 4) 토레스는 브라질이 이베로아메리카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베로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륙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옛 프랑스 식민지 국가나 지역을 제외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옛 식민지들로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브라질도 여기에 포함된다. 토레스 개인의 착각이거나 브라질 국민들이 정의하는 이베로아메리카의 정의가 별도로 존재하는 듯하다. 일반적인 이베로아메리카의 정의를 이 사건에 적용한다면, 프랑스에서 브라질 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소수문학에 불과하기 때문에 1955년의 번역본은 브라질 문학이라는 정체성 없이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이베로아메리카 문학

### 2.3. 번역자 연구—번역자의 지위

번역에서의 ‘번역자의 지위’는 지영래&박선희(2010)처럼 다른 도착 문화권 내에서의 비교를 통하여 각 문화권 간의 문화적 권력 차이로 연장될 수도 있지만, 번역문 내에서의 번역자의 지위 문제를 다루거나, 연구 시선을 번역 수용 사회로 돌려 수용 사회에서의 번역자의 지위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다.

번역문 안에서 언제나 원저자의 존재에 밀려 또 다른 저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번역자의 지위에 대해 탐색한 허먼스(Hermans 1996)은 번역문이 원문의 충실한 복제라는 생각에 일침을 가한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번역은 투명성과 동질성, 재생산, 번역문 안에 번역자의 부재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되고, 투명하고 보이지 않음으로써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번역자를 좋은 번역자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먼스에게 번역은 언제나 잡종이며, 복수이고 다른 것이다.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번역문의 서술 담화에는 한 가지 이상의 목소리가 존재하며, 서술자의 목소리 외에 언제나 존재하는 두 번째 목소리는 바로 번역자의 목소리이다(1996: 25, 44-45). 그런데 번역문의 서술 담화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 뒤에 숨겨져 그 존재를 감지하기 불가능한 번역자의 존재가 번역문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곁텍스트인 번역자 주석이라는 것이다. 번역자는 주석을 통해서 텍스트의 표면에 부상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1996: 27). 그러므로 곁텍스트인 번역자 주석은 숨겨진 저자로서 번역문 안에 숨어있도록 강요받는 번역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냈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통로인 것이다.

번역서의 역사 후기를 분석함으로써 번역 수용 사회에서의 번역자의 지위를 ‘가시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도 가능하다. 번역자 후기나 신문 인터뷰 기사를 바탕으로 번역자의 곁텍스트적 가시성과 사회적 가시성을 연구한 김영신(2012: 20)은 번역자의 후기나 인터뷰에 담긴 우리나라의 출판 시장 현황, 번역자의 자기 인식, 원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고, 번역작업에

---

으로 원전의 출신이 모호하게 프랑스에 수용되었다면, 훨씬 더 시간이 흐른 1990년대 번역본에 가서야 이 번역의 원전이 브라질 문학에 속한다는 곁텍스트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 사회, 번역 전략, 작품에 대한 서평 등이 담겨있는 역자 후기를 번역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번역 목적인 텔로스(Telos)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보았다(2012: 14-15). 번역자의 사회적 가시성 문제에 대한 접근은 유한내(2013: 107)에게서도 발견된다. 한 번역자의 신문/잡지 인터뷰와 신문 기사, 수강 소감을 대상으로 결텍스트 안에 담긴 번역자의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역할 관계를 관찰하였다.

지금까지의 번역문의 결텍스트를 다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번역문 내에서의 번역자의 가시성 관점으로 접근한 허먼스(1996)를 제외하면, 번역문의 결텍스트들에 나타나는 특성들은 번역의 도착 국가인 번역의 수용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서 출판 유형, 출발 문화권과의 관계, 번역자의 지위 등의 연구 주제들은 모두 번역 수용 연구로 포괄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범주로는 번역 사회학 연구에 포함된다. 그런데 번역문의 결텍스트를 활용한 연구들은 번역 수용과 같은 실제 사회상을 연구하는 현실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개념적인 연구도 가능하다.

#### 2.4. 번역문의 결텍스트에 대한 정의

지영래&박선희(2010)는 번역문의 결텍스트들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주네트의 *Seuils*에서 발견되는 결텍스트에 대한 “성찰은 대부분 불어 원본에서의 결텍스트, 즉 출발어 텍스트에서의 결텍스트 문제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지 그 원본이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로 번역된 텍스트의 경우엔 그가 정의한 결텍스트 개념이 매우 불충분”(지영래&박선희 2010: 248)함을 지적하며, “주네트에 의해 원저자가 자국의 언어로 쓴 원본 작품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정의된 “결텍스트”의 개념들이 과연 그 작품을 다른 언어로 옮긴 번역본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효(2010: 251)”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원문의 결텍스트와는 다른, 번역문의 결텍스트의 위상을 밝히기 위해서 주네트가 정의한 결텍스트를 구분하는 다섯 가지 기준(공간적, 시간적, 본성적, 화용적, 기능적 측면) 중에서 특히 화용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다른 네 가지 기준은 원문이건 번역문이건 간에 모든 일반적인 텍스트에 적용가능하지만 원문과 번역문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화용적 특성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2010: 251). 원문은 ‘저자’만을 갖지만, 번역문은 ‘(원문의) 저자’와 번역문의 저자인 ‘번역자’라는 또 다른 발신자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네트가 원문의 결텍스트를 ‘저자 결텍스트’와 ‘편집자 결텍스트’로 구분하였다면, 번역문의 결텍스트에는 ‘번역자 결텍스트’라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2010: 248).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결텍스트’를 번역문과 한 책으로 묶여서 구성된 결텍스트를 ‘주변텍스트(péritexte)’로 번역하고, 번역문과 한 책으로 구성되지 않고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진, 즉 번역서 밖에 존재하는 결텍스트를 ‘후텍스트(épitexte)’라고 번역하였다. 반면에 임동확(2005: 161)은 이것들을 각각 ‘주변텍스트(péritexte)’와 ‘바깥텍스트(épitexte)’로 번역하였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주네트가 공간적인 특성에 따라 본문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들의 자리를 기준으로 paratexte를 péri-texte와 épi-texte로 구분한 것을 고려한다면, 임동확의 ‘주변’과 ‘바깥’이 보다 적절한 용어라고 판단된다. épitexte를 ‘후텍스트’라고 번역하면, 번역서 출간 ‘이후에’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텍스트라는 어감을 주어 공간보다는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된 개념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주네트가 결텍스트를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도 구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특성의 결텍스트 구분과 혼동을 줄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동확의 용어를 선택하여 공간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는 ‘결텍스트(paratexte)’를 번역문 주변에 존재하는 ‘주변텍스트(péritexte)’와 번역문 바깥에 존재하는 ‘바깥텍스트(épitexte)’로 구분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위에서 소개한 대부분의 결텍스트 연구들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번역문과 같이 붙어 있는 주변텍스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목에서부터 바깥텍스트 연구를 명확하게 표방한 유한내(2013)를 제외하고, 그리고 김영신(2012)의 연구 소재들 중 신문 기사 하나를 제외하면, 위에 언급된 선행 연구들이 결텍스트(paratext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상 그들이 연구 소재로 삼은 결텍스트들은 주변텍스트들이다. 주네트는 결텍스트를 여러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였으나,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에서는 결텍스트들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저 모호하게 가장 상위 개념인 ‘결텍스트’로만 지칭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번역문의 결텍스트 연구들이 주변텍스트 중심인 것은 아직까지 번

역문의 바깥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들은 번역서에서 번역문을 제외한 모든 물리적 구성들이 이에 해당하므로, 연구 소재로 삼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번역문의 바깥텍스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텍스트들이 바깥텍스트들인지, 그리고 어느 범주의 텍스트들까지 번역문의 바깥텍스트로 보아야 하는지 아직까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네트가 정의한 원문의 결텍스트의 기준과 종류를 살펴보고, 주네트의 기준을 번역문에 적용하여 번역문 결텍스트들의 구체적인 범주와 종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원문의 결텍스트

주네트는 결텍스트를 “텍스트(본문)를 둘러싸고 그것을 연장하면서 텍스트를 소개하고 그것이 책의 형태로 수용되고 소비되는 것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들”(1987: 7; 지영래&박선희 2010: 247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한다. “텍스트는 사라지고 작품의 제목만 남은 경우처럼 텍스트 없는 결텍스트는 있어도, 결텍스트 없는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Genette 1987: 9). 그는 *Seuils*에서 결텍스트를 장소, 시간, 본질, 화용, 기능 등 여러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였다(1987: 10-19).

#### 3.1. 결텍스트의 특성들

##### 3.1.1. 공간적 특성

우선 공간적인 특성에 따른 구분부터 살펴보자. 주네트는 하나의 결텍스트적인 요소가 물질적인 메시지로 구성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문의 자리와 비교하여 결텍스트가 위치하는 자리를 기준으로 결텍스트를 두 종류로 구분한다. 먼저 동일 판본의 공간 안에서 본문 주위나 본문 사이사이에 위치하는 메시지들을 주변텍스트(*péritexte*)로 정의하고, 그 다음으로는 여전히 본문의 주위에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보다 더 신중한 거리를

두고 책의 외부에 자리 잡은 모든 메시지들을 바깥텍스트(épitexte)로 정의하였다(1987: 10-11).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주네트는 공간적 특성에 따른 결텍스트의 구분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설명하였다(1987: 11).

$$\text{결텍스트} = \text{주변텍스트} + \text{바깥텍스트}$$

### 3.1.2. 시간적 상황

시간적 특성은 본문과 비교하여 결텍스트가 작성된 시간에 따라 구분된다. 책의 출간을 예고하는 공지나 안내서처럼 본문보다 먼저 생산되면 ‘사전 결텍스트(paratexte antérieur)’이고, 가장 흔한 경우인, 책 속에 포함된 서문처럼 본문과 동시에 등장하면 ‘초판 결텍스트(paratexte original)’이다. 결텍스트가 본문보다 나중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판에는 없었던 서문이 두 번째 판에 수록되는 경우 ‘후속 결텍스트(paratexte ultérieur)’이고 첫 출간 후 재판집되어 작품의 판본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추후 결텍스트(paratexte tardif)’라고 하였다. 또 저자의 사망 시점과 관련하여 구분되기도 한다. 저자가 사망한 후에 나오면 ‘사후 결텍스트(paratexte posthume)’, 저자 살아 있을 때 나오면 ‘생전 결텍스트(paratexte anthume)’로 구분한다(1987: 11).

### 3.1.3. 본성적 특성

결텍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모든 결텍스트는 제목이나 서문처럼 ‘텍스트적(textuel)’인 성질을 갖기도 하고, 인터뷰처럼 일부 ‘언어적(verbal)’ 성격을 갖기도 한다. 삽화처럼 ‘도상적(iconique)’ 성질도 지니는 경우도 있고, 책 한 권의 구성 요소에서 인쇄를 위한 선택인 판형처럼 ‘물질적(matériel)’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네트는 결텍스트는 ‘사실적(factuel)’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사실적’ 성질은 결텍스트가 언어적이거나 다른 것들로 구성된 명확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실로서 이 사실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지면 텍스트에 대한 논평을 만들어

내거나 텍스트의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런 ‘사실적 결텍스트’의 예로, 작가의 성별이나 나이, 작품의 출간 시기, 작가가 어느 아카데미나 유명 단체에 속해있는지, 그리고 문학상들의 수상 여부 등을 예로 들었다(1987: 10-11).

#### 3.1.4. 화용적 특성

화용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이 아래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표 1 화용적 특성에 따른 결텍스트의 구분

기준	결텍스트의 구분
발신자	저자 / 편집자 / 제삼자
수신자	공적 [대중, 독자, 비평가, 서적상] / 사적 [저자 자신, 서신 상대, 절친한 친구]
책임	공식 / 비공식
발화내적 힘	정보 / 의도 또는 해석 / 결정/ 약속 / 충고 / 명령 / 수행 등

먼저 발신자 즉 결텍스트의 생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텍스트를 두 종류로 나뉘는데, 발신자가 저자이면 ‘저자 결텍스트(paratexte auctorial)’이고, 발신자가 편집자이면 ‘편집자 결텍스트(paratexte éditorial)’가 된다. 물론 대부분의 결텍스트는 편집자와 저자가 상호 협의 하에 대부분 생산되지만, 두 생산자 중 누가 맡은 책임이 더 크가에 의해서, 다르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누가 더 주도적으로 자기 의사를 반영해서 제작에 참여하는가 하는 ‘추정되는 권한’에 의해서 ‘저자 결텍스트’와 ‘편집자 결텍스트’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경우, 저자와 편집자 양자가 본문과 결텍스트를 책임지지만, 그들의 책임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책의 서문을 저자의 승인 하에 제삼자가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는 인터뷰의 경우, 저자와 그를 인터뷰한 제삼자가 공동의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발신자적인 정의에서 주네트는 저자나 편집자 외에도 제삼자를 발신자로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앞의 두 발신자에 대해서는 ‘저자 결텍스트’와 ‘편집자 결텍스트’로 이름 짓기를 하였으나 제삼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름 짓기를 하지는 않았다.

수신자를 기준으로 하면, 결텍스트가 작품의 제목이나 저자 인터뷰처럼 대중을 수신자로 할 수도 있고, 서문처럼 독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편집자가 배포하는 작품 소개문처럼 비평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서적상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들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결텍스트들은 ‘공적 결텍스트(paratexte public)’가 된다. 반면에 글이나 구두로 저자 자신이나 지인에게 전하는 텍스트는 ‘사적 결텍스트(paratexte privé)’로 구분하였다.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편집자나 저자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공식 결텍스트(paratexte officiel)’(제목이나 초판 서문 등 발신자들이 생전에 쓴 주변텍스트)와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어느 정도 면하게 해주는 ‘비공식 결텍스트(paratexte officieux)’(인터뷰, 대담, 비밀 이야기 등 대부분 저자 바깥텍스트)로 나뉜다. 한편 주네트는 저자가 제삼자에게 서문을 집필하게 하거나 주석을 달게 한 경우도 ‘비공식 결텍스트’라고 보았다. 이것은 저자나 편집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인 듯하다. 이것은, 위의 발신자의 경우처럼, 결텍스트를 정의할 때 저자와 편집자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바깥텍스트를 통시적 시점으로 관찰하면, 제삼자가 발신한 수많은 바깥텍스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삼자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결텍스트의 메세지에는 발화내적인 힘이 담겨 있다. 저자의 이름이나 출판 날짜 등은 순전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경우이다. 서문이나 표지나 속표지에 담긴 전반적인 정보들은 편집자나 저자의 ‘의도’나 ‘해석’을 알게 해주며,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저자명이나 작품의 제목은 저자의 ‘결정’을 가리킨다. 표지에 자서전, 역사서, 회고록 등으로 기록되었다면, 이것은 진실을 말하겠다는 ‘약속’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충고’, ‘명령’, ‘수행’ 등이 있다(1987: 13-16).

### 3.1.5. 기능적 특성

주네트는 기능적 특성 부분에서는 결텍스트를 여러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결텍스트가 필수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성에 대해서 기술한다. 왜냐하면 결텍스트

트의 기능들은 이론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선택적으로 위상과 관련하여 기술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결텍스트의 다른 특성들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한 요소를 선택할 때 다른 요소들이 배제되지만, (예를 들어 서문은 언제나 바깥이 아닌 주변텍스트이고, 저자 서문이거나 제삼자 서문이지 그 둘이 겹치지는 않는다.) 기능적인 선택은 양자택일을 한다거나 다른 것을 배제하는 성질은 없다. 즉 제목, 헌사, 서문, 인터뷰들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다(1987: 16-17).

그러므로 주네트는 모든 형태의 결텍스트들은 그것의 존재 이유인 텍스트(본문)를 위해 헌신하고, 텍스트를 보조하며, 텍스트와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담화이며, 결텍스트적인 어떤 요소는 ‘그것의’ 텍스트에 언제나 종속되어 있다고 정의한다(1987: 16). 이것이 주네트가 생각하는 결텍스트의 기능이다.

그런데 결텍스트들은 텍스트마다 그 구성을 달리하고, 결텍스트의 방식도 시대와 문화, 장르, 저자, 작품에 따라 끈임 없이 변할 뿐만 아니라 같은 작품이라도 판본에 따라 달라진다(1987: 9).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1980년대의 주네트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점에서는 결텍스트를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된 ‘매체적’ 특성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네트가 *Seuils*를 기술할 때는 종이책을 기반으로 하거나 TV/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와 같이 영상이나 음성으로 구성된 결텍스트들만을 상정하여 기술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매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기존의 ‘아날로그’적 방식의 종이책이나 방송 매체로 전달되느냐, ‘디지털’화되어 인터넷 같은 웹 기반이나 전자책 형식으로 전달되느냐, 마이크로 필름이나 스캔된 ‘이미지 파일’로 전달되느냐에 따른 결텍스트 구분도 추가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기준들을 모두 적용하여 결텍스트를 구분하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구분 기준이 명확한 공간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결텍스트들의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Seuils*의 목차를 보면 주네트 자신도 이 두 가지 특성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결텍스트를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5) 주네트(1987: 8)는 *Seuils*의 목차를 구성할 때, 책 한권의 주변텍스트들 중 일반적으

### 3.2. 결텍스트 요소들

우선 공간적 특성에 따라 결텍스트를 주변과 바깥으로 구분한 후 화용적 특성의 발신자와 수신자로 결텍스트들을 구분할 것이다.

#### 3.2.1. 주변텍스트

주변텍스트를 발신자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주변텍스트 = 저자 주변텍스트 + 편집자 주변텍스트 + 제삼자 주변텍스트

‘제삼자 주변텍스트’는, 저자와 편집자와는 달리, 주네트가 이름 짓기를 한 것은 아니나 제삼자가 발신자인 주변텍스트도 *Seuils*에서 언급되었고, 실제 존재하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것이다.

다시 주변텍스트를 수신자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책이 출판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그 책 속에 포함된 결텍스트들은 모두 공적텍스트이고, 책임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발신자가 그 내용에 책임을 처야 하는 공식텍스트들이다. 주변텍스트의 발화내적 힘은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책 한권을 구성하는 주변텍스트들의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편집자 주변텍스트 : 표지와 속표지 디자인/문구, 판형, 시리즈명, 삽화, 출판 정보, 편집자 주석 등

로 독자들이 찾아보게 되는 메시지들의 순서대로 주변텍스트 요소들을 먼저 배치한 후, 목차 맨 밑에 바깥텍스트를 배치시켰다. 이런 저자의 의도 때문에, 지영래&박선희(2010: 250-51)가 지적한대로, *Seuils*의 목차에서 제시된 일부 주변텍스트 요소들은 구분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그가 제시한 결텍스트의 분류 기준들을 적용해보면, 우선은 공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주변과 바깥텍스트로 가장 크게 구분한 후, 그 다음으로 주변텍스트를 화용적 특성의 발신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집자 주변텍스트를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 주변텍스트들은 주된 발신자가 저자인 텍스트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자나 제삼자가 될 수도 있는 텍스트들이다.) 반면에 바깥텍스트는 화용적 특성의, 발신자가 아닌, 수신자를 기준으로 공적 바깥텍스트와 사적 바깥텍스트로 구분하였다.

저자 주변텍스트 : 저자명, 제목, 소제목, 헌사, 제사, 저자 서문(후기), 저자 주석 등

제삼자 주변텍스트 : 제삼자 서문 등

### 3.2.2. 바깥텍스트

바깥텍스트는 주네트가 구분한 것처럼 수신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적과 사적 바깥텍스트로 나눌 수 있다.

바깥텍스트 = 공적 바깥텍스트 + 사적 바깥텍스트

주변텍스트는 출판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텍스트들이므로 기본적으로 공적 텍스트들이지만, 바깥텍스트들의 경우, 수신자가 대중이나 아니면 저자 자신이나 지인이냐에 따라서 공적과 사적으로 구분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네트가 주변텍스트와는 다르게 바깥텍스트에 대해서는 공적과 사적 텍스트로 구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네트는 공적과 사적 바깥텍스트가 반드시 수신자가 대중인지 아닌지, 출판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미래의 출판을 염두에 두고 쓰인 사적인 편지나 일기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때 사적텍스트들의 수신자는 미래에 그 내용의 증언자 역할을 하게 된다(1987: 341).

주네트가 제시한 바깥텍스트 요소들(1987: 316-17, 319)과 본 연구에서 추가하는, 괄호로 묶은, 바깥텍스트 요소들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적 바깥텍스트 : 신문/잡지 기사, TV/라디오/발표회/심포지엄 인터뷰 또는 대답, 토론, 학회 발표집, 안내서, 계시문 등 (단행본이나 단행본 일부, 학술 논문, 서평, 번역서, 독후감 등)

사적 바깥텍스트 : 일기, 편지, 사적 대화 등

바깥텍스트를 책임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발신자의 직접적인 이름으로 글로 출판된 바깥텍스트들의 경우, 발신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공식 텍스트들이지만, 인터뷰나 대답, 비밀이야기 등의 공적 또는 사적 텍스트들은, 주네트의 지

적대로 ‘말과 다르게 전달되었다’거나 ‘즉석에서 한 말이었다’거나 ‘공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1987: 15) 등으로 부인함으로써 책임을 빗겨갈 수 있는 비공식텍스트들이다. 발화내적인 힘은 주변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바깥텍스트도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함의가 포함될 수 있다.

주네트는 공시적 관점으로 곁텍스트를 고찰하였기 때문에(1987: 18) 주네트가 제시한 바깥텍스트들의 예는 대부분 저자가 발신자인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바깥텍스트들은 저자가 발신자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였고, 두 번째 발신자는 대화자나 중계자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발신자가 편집자나 제삼자일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부차적인 발신자로 여겼고, 제삼자도 저자에게 허락받은 제삼자로 상정하였다(1987: 317). 그러나 주네트가 선택한 공시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작품의 저자 중심으로 사고하게 될 테지만, 관점을 통시적으로 바꾸어 보면, 저자, 편집자, 제삼자 모두 가능한 바깥텍스트들의 생산자들이다. 예를 들어, *Madame Bovary*의 첫 판본이 프랑스에서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의 생산된 바깥텍스트들을 모아보면, 이미 사망한 저자가 생산한 바깥텍스트들보다 제삼자들이 이 고전 소설에 대해 말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제삼자들이 발신자인 공적 바깥텍스트들을 괄호 안에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문학 비평가나 연구자가 플로베르가 쓴 *Madame Bovary*에 대한 비평이나 소개를 공개적으로 출판하면 공적 바깥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 소설의 비평문은 단행본이나 단행본의 일부 장의 형태로 공개될 수도 있고, 학술 논문으로 공개될 수도 있으며 문학지의 서평란으로 공개될 수도 있다. 또는 일반 독자가 이 소설을 원문으로 읽고 자신의 생각을 출판물이나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 서점 서평란에 기고하면 그것도 또한 공적 바깥텍스트가 된다. 한편 프랑스어로 쓰인 플로베르의 *Madame Bovary*가 김화영이 번역한 『마담 보바리』가 되어 한국의 민음사에서 출판되었다면 이 소설의 번역서도 원전인 *Madame Bovary*의 공적 바깥텍스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네트의 곁텍스트는 번역문이 아닌 원문 중심의 개념이므로<sup>6)</sup>, 이 개념을 번역문(번역서의 본문), 특히 한국어 번역문에 적용하기 위해서

6) 주네트는 *Seuils*의 결론(1987: 372-73)에서 곁텍스트성이 분명히 있는 ‘번역’과 ‘연재

는 여기에 적합한 또 다른 결텍스트의 정의가 필요하다.

#### 4. 번역문의 결텍스트

지영래&박선희(2010: 248)에서 화용적 관점을 기준으로 ‘번역자 결텍스트 (paratexte traductorial)’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번역자 결텍스트의 종류를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영래&박선희(2010)의 후속 연구로서, 위에서 소개한 주네트의 공간적-화용적 구분을 번역문에 적용하여 번역문의 결텍스트 요소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주네트의 결텍스트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되 원문이 아닌 번역문의 결텍스트로서 주네트의 결텍스트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을 찾을 것이다.

주네트의 결텍스트와 번역문의 결텍스트가 다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원문과 번역문은 근원적인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번역문은 원문의 바깥텍스트라는 점에서 원문의 입장에서는 원문에서 파생된, 원문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종속적 텍스트이므로 원문과 위상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런 번역문이 그것을 생산한 번역 도착 국가에서는 원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도착 국가에서 번역문은 수많은 다른 결텍스트를 생산해내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번역문의 결텍스트는 원문의 입장에서 보면, 원문의 결텍스트가 파생시킨 또 다른 결텍스트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결텍스트는 원문의 바깥텍스트가 된다. 예를 들어, 플로베르가 쓴 *Madame Bovary*를 김화영이 『마담 보바리』로 번역하면서 번역서 뒤편에 ‘작품 해설’을 덧붙였다. 이 텍스트는 번역문에게는 주변 텍스트이지만, 원문인 *Madame Bovary*의 입장에서는 *Madame Bovary*에 대한 해설이므로 원문의 바깥텍스트인 것이다. 또는 번역서 『마담 보바리』를 읽은 어느 한국 독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독후감을 올렸다면, 이 텍스트는 번역문의 바깥텍스트이지만, 원문의 입장에서는 원문의 바깥텍스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번역문은 그 자체로 결텍스트를 생산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원문의 바깥텍스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매개자이기도 하다.

---

소설 출판, ‘삼화’는 작업 분량의 한계로 미처 다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문과 번역문을 구분 짓는 또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발신자적 특성에서 발생한다. 번역문에는, 원문에는 없는, 번역자라는 또 다른 저자가 있기 때문이다. 발신자에 번역자라는 생산자를 하나 더 추가하여 번역문의 곁텍스트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번역문의 곁텍스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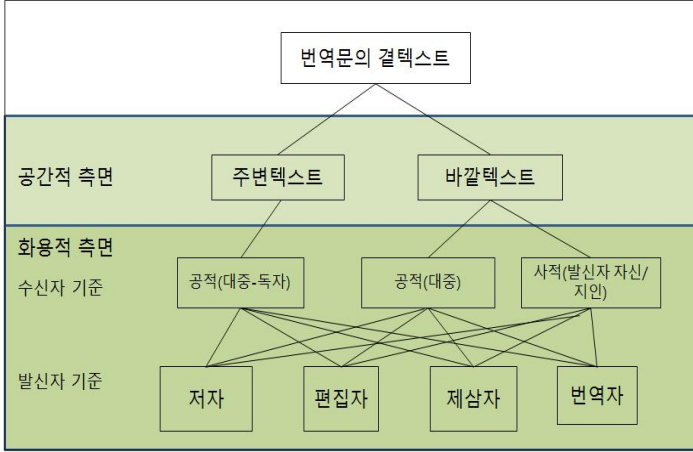


그림 1에서처럼 번역문의 곁텍스트 발신자는 원문의 발신자와 같이 저자, 편집자, 제삼자에 번역자라는 새로운 발신자가 추가된다. 수신자를 살펴보면,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는 공식적으로 출판되는 번역서에 포함되는 요소들이므로 주변텍스트들의 수신자들은 좁은 범위로는 잠재적인 번역서의 독자로 볼 수 있고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일반 대중으로 넓힐 수도 있는 ‘공적 텍스트’이다. 반면에 바깥텍스트들은 그 번역서를 이미 읽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읽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읽을 생각이 없는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되면 ‘공적 텍스트’이고, 그 번역문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발신자 자신이나 지인에게 공개하는 사적 담화라면 ‘사적 텍스트’에 해당한다.

#### 4.1. 번역문의 주변텍스트

원문의 주변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번역서에서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요소들은 모두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들이다.

저자 주변텍스트: 저자명, 제목, 부제, 헌사, 주석, 저자 서문 등

편집자 주변텍스트 : 관형, 등장인물 소개, 삽화, 사진, 표지/속표지 디자인, 표지/속표지 문구, 편집자 서문, 편집위원 명단, 시리즈명, 일러두기 등

번역자 주변텍스트 : 번역자명, 작품해설, 작가 연보, 번역자 헌사, 역주, 역자 서문(후기), 번역자 약력 등

제삼자 주변텍스트: 추천 서문, 추천 문구, 작품 해설 등

그런데 위의 발신자 기준의 주변텍스트 구분은 지영래&박선희(2010: 252)의 정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선행 연구는 번역본에서 어디까지를 본문(번역문)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서는 원저자가 작성한 원본의 ‘헌사’나 지인에게 바치는 ‘감사의 글’이 번역에서는 원본의 ‘본문’과 더불어 번역할 대상이므로 원본의 주변텍스트였던 이런 요소들이 번역에서는 ‘본문’으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성찰을 원본의 ‘제목’이나 ‘작가명’에 적용한다면, 이런 요소들도 번역을 해야 할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이런 관점에서는 ‘제목’이나 ‘작가명’도 번역본의 본문이 되버리고, 그렇게 되면 번역문의 결텍스트에는 번역서의 ‘원제목’도 ‘원저자명’도 없게 된다. 모두 번역본의 본문, 즉 번역문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번역의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번역의 본문으로 보아야 한다면, 예를 들어, 어느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을 기념해서 원저자가 원본에는 없었던 ‘감사의 글’을 번역본에 새로 추가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역의 대상이므로 원본에는 없는 텍스트인데도 번역본의 본문(번역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본문’, ‘저자명’, ‘제목’, ‘감사의 글’, 저자의 ‘부제’, ‘헌사’ 모두 번역자의 입장에서는 번역해야 할 원본인 것은 맞지만, 발신자를 기준으로 한 번역문의 결텍스트 구분에서는 저자가 작성한 결텍스트는 모두 저자가 발신자인 ‘저자 결텍스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네트가 본문과 결텍스트를 구분할 때 적용한 기준처럼, 본 연구에서 말하는 번역문이란 원작의 본문을 옮긴 번역서의 본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란 번역서에서 본문을 제외한 구성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할 것이다. 따라서 번역본의 주변텍스트들 중 저자가 발신자이면 ‘저

자 주변텍스트'이고, 번역자가 발신자이면 '번역자 주변텍스트'라고 정의한다. 번역문의 결텍스트는 원문의 결텍스트에는 없는 '번역자 결텍스트'들이 추가된 것이 원문의 결텍스트들과 차이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결텍스트 구분은 고정된 불변요소가 아니다. 위에서 번역문의 주변텍스트인 '작품 해설'이 원문에서는 바깥텍스트로 바뀌는 것처럼,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들도 최종 발신자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래 전에 출판된 어느 번역자의 '작품 해설'을 번역자 사후에 출판사가 번역서를 재판집하면서 판형이 협소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번역자의 '작품 해설'을 임의로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짧게 운문해서 출판한다면, 그 변형된 '작품 해설'의 최종 발신자는 편집자이며 더 이상 그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서 번역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 텍스트는 그때부터는 '편집자 주변텍스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텍스트의 성격은 판본마다 그때그때 발신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 4.2. 번역문의 바깥텍스트

번역문의 바깥텍스트의 구분도 주네트의 구분대로 공적/사적 바깥텍스트로 구분하였다.

- 공적 바깥텍스트 : 신문/잡지 기사, TV/라디오/발표회/심포지엄 인터뷰 또는 대담, 토론, 학회 발표집, 안내서, 기사문, 단행본 또는 단행본의 일부, 학술 논문, 서평, 독후감 등
- 사적 바깥텍스트 : 편지, 일기, 사적 대화, 번역 노트 등

번역문의 바깥텍스트들은 번역서의 판매와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번역서를 읽고 작성했거나, 번역된 작품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텍스트들이다. 즉 번역서로부터 발생했거나 번역서를 위해 존재하는 텍스트들이다. 원문의 바깥텍스트와 달라진 점은 번역자의 번역 노트가 추가된 정도이다.

원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번역문 바깥텍스트들은 발신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프랑스 작가 베르베르가 한국 대중을 앞에서 강연을 하고 그때 자신의 책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그 담화의 수신자는 원문의 독자가 아닌 번역문의 독자들이고 그 독자들이 읽었거나 읽게 될 텍스트

는 번역문이므로 한국에서 진행된 베르베르 강연이나 인터뷰는 번역문의 ‘저자 바깥텍스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베르베르의 소설을 대중적 인기작으로 만든 번역자 이세욱이 자신의 번역서 출간에 즈음하여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어느 대형 서점에서 북 콘서트를 열었다면, 그 번역자가 콘서트에서 한 말은 번역문의 ‘번역자 바깥텍스트’가 된다. 신문이나 잡지 기사, 대담, 토론, 편지, 일기, 사적 대화의 경우, 저자나 편집자, 번역자, 제삼자 등 모든 발신자가 그 번역문에 대해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깥텍스트들은 모든 발신자에 의해서 생산될 수 있는 결텍스트들이다. 물론 바깥텍스트도 그 종류에 따라서 주요한 발신자들을 상정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안내서, 게시문 같은 광고의 경우, ‘편집자 바깥텍스트’가 많을 것이고, 단행본이나 논문, 서평, 독후감은 ‘제삼자’가 발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번역 노트의 발신자는 ‘번역자’이다.

그런데 바깥텍스트의 경우,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번역문의 바깥텍스트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주변텍스트의 경우, 번역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명확하다. 그러나 번역서의 물리적 구성과 관련이 없는 바깥텍스트는 어디까지 번역문의 바깥텍스트인가? 예를 들어, 한국 잡지의 고전 소개란에서 전체 기사의 내용이 『마담 보바리』를 소개하는 것이라면, 그 텍스트는 번역문의 바깥텍스트로 볼 수 있겠지만, 기사의 일부로 제목이나 책의 내용이 잠깐 언급된 정도라면 이런 텍스트들도 『마담 보바리』의 바깥텍스트라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매일경제신문』의 1980년 12월 9일자 8면에 <건강관리>라는 코너에서 건강식으로 프룬(자두)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 부분이 있다.

프랑스 문학 작품에는 프룬에 대한 표현이 가끔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프룬같은 눈동자」 등등의 묘사가 있다. 즉 「보들레르」의 「악의꽃」 「주가루」의 「치보가의 사람들」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로맹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 등에 저 프룬같은 눈이라고 묘사한 대목이 자주 눈에 띈다.

한국 대중들을 수신자로 하는 위의 신문 기사처럼 작품 속 일부 내용을 짧게 언급한 경우도 번역문의 바깥텍스트인가? 주네트는 ‘바깥텍스트가 늘 작품에 대한 언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작품과의 관계가 간접적이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경계에 있을 수도 있다. 바깥텍스트의 외적인 경계는 없다(1987:

317-18)'고 하였다. 또한 바깥텍스트는 번역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어떤 조건 하에 번역들이 생산되고 소비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기도 하다(Tahir-Gürçağlar 2002: 59).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심장전문의사가 작성한 위의 기사는 번역문의 바깥텍스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사의 작성자인 심장전문의가 '저 프룬같은 눈'이라는 묘사를 발견한 출처는 프랑스어로 쓰인 원문이 아니라, 어느 한국인 번역자가 번역한 번역문일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 기사의 수신자인 신문 독자들에게 인식되는 「보바리 부인」도 *Madame Bovary* 라는 제목을 지닌 프랑스어 책이 아닌 「보바리 부인」이라는 제목의 번역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내용 또한 번역된 이 소설이 어느 한국인 독자에게 '자두를 빗대어 사람의 눈을 묘사한 작품'으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주네트가 제시한 결텍스트의 공간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을 번역문에 적용하여 번역문의 결텍스트들을 정의하고, 그 결텍스트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결텍스트들을 공간적 차원에서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로 구분한 후, 다시 주변텍스트들은 화용적 특성의 발신자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바깥텍스트들은 수신자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번역문이 생산하는 결텍스트의 지위를 원문의 결텍스트와 비교하고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발신자 기준으로 주변과 바깥텍스트를 고찰하면 주변 텍스트는 주로 번역자와 편집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라면, 바깥텍스트는 앞의 두 발신자뿐만 아니라 그 번역문을 읽은 제삼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관점을 바꾸어 수신자를 기준으로 고찰하면, 주변텍스트는 번역자나 편집자의 감정적인 고객인, 번역문의 독자가 최종 대상이라면, 바깥텍스트의 경우는, 개인 문서인 사적 바깥텍스트를 제외하면, 공적 바깥텍스트는 번역 수용 사회의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텍스트이다.

결텍스트는 텍스트와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명확한 경계가 없는

(Genette 1987: 8), 중간 지대로서 우리에게 “그 텍스트에 대한 세상의 담화”를 전해주는 매체이다. 이처럼 결텍스트는 번역된 한 작품이 수용 사회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정의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번역 사회학 관점의 수용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 도구이다. 그러나 주변텍스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번역문의 결텍스트 연구는 작품 수용과 관련된 세상의 담화들을 일부만 전할 뿐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바깥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선행 소수의 연구들은 현 시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번역자들이 생산한 바깥텍스트들이 연구 소재로 사용된 경우들이다. 그런데 비교적 자료 수집이 수월한 장점이 있는 현대의 바깥텍스트들은 공식적 관점의 번역 사회학 연구만을 가능케 한다. 한국에서 어느 특정 작품이 번역으로 처음 수용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대중 수용 양상을 연구하는 통시적 관점의 번역 사회학 연구를 위해서는, 주변텍스트와 더불어 현재 도서관 어느 귀퉁이에서 먼지에 쌓인 채 잠자고 있을 번역문들의 바깥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 시간상의 제약으로 미처 성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 번역문의 결텍스트는 원문의 결텍스트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원문 결텍스트와 번역문 결텍스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은 어디이며, 그 경계가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영신 (2012) 「역자후기를 통해 본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 연구」, 『번역학연구』 13(4): 7-27.
- 유한내 (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정영목 譯 <로드>의 후텍스트 분석」, 『통번역학연구』 17(4): 101-19.
- 임동환 (2005)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 생성의 시학 : 임동환 시론집』, 서울: 코나투스 출판사.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247-76.

- 한미선 (2013) 「풍자소설 번역에서의 결텍스트 기능 및 특징」, 『번역학연구』 14(4): 199-223.
- Genette, Gerard (1987) *Seuils*, Paris: Editon du Seuil.
- Tahir-Gürçağlar, Şehnaz (2002) ‘What Texts Don’t Tell: The Use of Paratexts in Translation Research’. in Theo Hermans (eds.),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I: Historical and Ideological Issues*, Manchester: St. Jeroms, 44-60.
- Tahir-Gürçağlar, Şehnaz (2010) ‘Paratexts’, in Luc Van Doorslaer & Yves Gambi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2,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13-16.
- Hermans, Theo (1996) ‘The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Target* 8(1): 23-48.
- Torres, Marie-Hélène C. (2002) ‘Indices de statut de roman traduit’, *Meta* 47(1): 5-15.

[Abstract]

**Paratexts of translated texts:  
definition of their peritexts and epitexts**

Park, Sunheui  
(Korea University)

The paratexts of translated texts are a useful research tool for studying translators and the reception of translations in society. However, current research on the paratexts of translated texts focuses primarily on peritexts, with little attention paid to epitexts. Likely, this is because the concepts of Genette's paratexts which are the canon of paratext research, even in translation studies, were originally born for original texts and not for translated texts. Therefore, Genette's concepts of original texts are somewhat mismatched to the paratextual concepts of translated texts. As such, the identity of the paratexts of translated texts is unclear and their research span has been narrow.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identified possible research approaches to the paratexts of translated texts by analyzing paratext-related translation research. In addition, the study introduced and interpreted Genette's paratexts, which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Finally, with reference to Genette's paratext criteria, this study defined the paratexts of translated text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peritexts and epitexts based on spatial and pragmatic feat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enable its authors to revitalize paratext studies and increase the amount of research focused on shifting from peritexts to epitexts in translation studies.

▶ Key Words: paratext, peritext, epitext, reception of translations, sociology of translations

박선희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omoname@korea.ac.kr

관심분야: 문체 번역, 번역 수용,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5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15년 3월 9일